

부산 북항 방파제 통항에서의 조선자의 주관적 평가

† 정태권* · 이동섭**

*한국해양대학교 항해시스템공학부 교수,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요 약 : 논문은 항만 위험관리의 한 분야로 항로를 계획하거나 기존 항로를 검증하는데 필요한 조선자의 조종상의 곤란한 정도를 다루기 위한 것이다. 이 논문은 한국해양연수원이 보유하고 있는 실시간, 폴리션 선박조종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부산 북항의 방파제 통과시에 나타나는 조선자의 주관적 평가와 조선자가 시행한 조종 위험도에 대한 상관관계를 비교하였으며 조선자의 심리적 부담감이 실제 조선에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논문의 결론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조종위험도와 주관적 평가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어 조종위험도가 크면 주관적 평가도 같이 증가함을 알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충분히 'tideway'를 주면 통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각적으로 보이는 여유 공간에 제한을 받아 통과할 정도의 'tideway'를 줄 수 없는 점이다. 이를 보면 시각적으로 보이는 모습이 항로 설계에 중요한 부분이 됨을 알 수 있다.

핵심용어 : 조종 위험성, 주관적 평가, tideway,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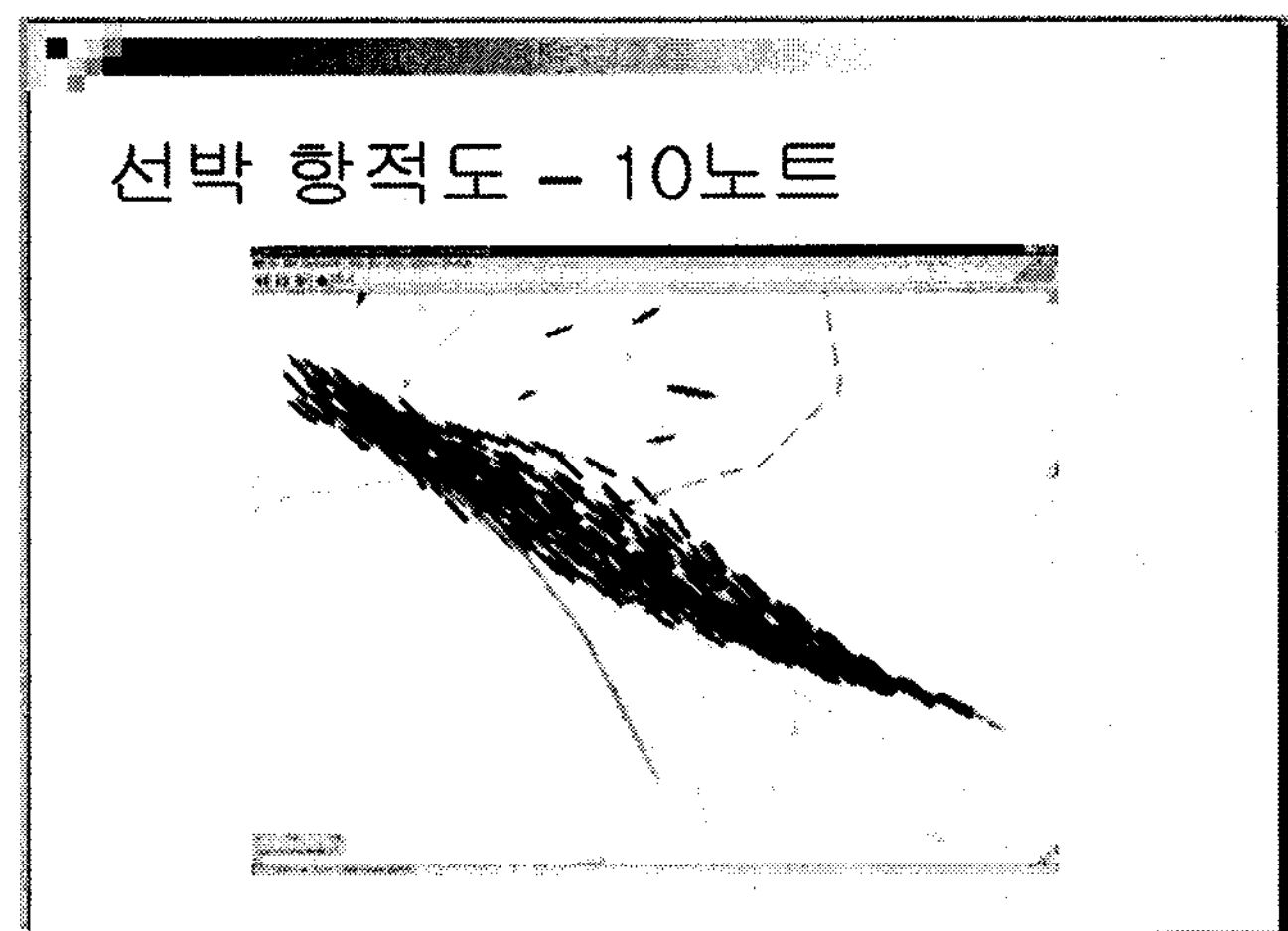
서론

- 조종 위험도
 - CPA 등의 실질적인 값
 - 침범 확률
- 조종 곤란도
 - 탄각, 기관 사용
- 주관적 평가
 - 스트레스
 - 업무 부담감
 - 위험도



서론

- 연구 목적
 - 주관적 평가의 값
 - 위험도와 상관관계
 - 위험도
 - 스트레스 수준
 - 업무의 난이도
- 조선자의 한계
 - 시야와 타이드웨이



† 교신저자 : 종신회원 tgieong@hhu.ac.kr 051-410-4246

* 정희원 dslee3196@hanmail.net 051)620-5826

